일념삼매에 홀연히 견성대오하니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向上向下自在用하야사
天上人間無等匹이로다.
향상구와 향하구의 진리를
자재하게 써야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로다.

금일(今日)은 신축년(辛丑年) 동안거(冬安居) 결제일(結制日)입니다. 인생(人生)이 긴 것 같지만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쉼 없이 흘러감에 돌이켜 볼 때 그 빠르기가 쏜 화살처럼 신속(迅速)함이라.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기에 사람의 몸을 받은 금생(今生)에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 금일 결제에 임하는 대중(大衆)들은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회광반조(回光返照)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각오로 화두(話頭)와 씨름해야 할 것이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하고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가운데 오매불망(寤寐不忘) 간절히, 화두의심이 뼈골에 사무치게 의심을 밀고 또 밀고 할 것 같으면 석 달 이내에 모두 다 견성(見性)할 수 있음이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철저한 의심이 뼈골에 사무치지 않은 때문에 혼침(昏沈), 번뇌(煩惱), 망상(妄想)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허송세월(虛送歲月)만 하게 됨이라.

이 견성은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善知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선지식(善知識)의 바른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만 지어가면 일념(一念)이 지속(持續)되어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된다. 참의심이 한 달이고 일 년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됨이라.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하를 종횡(縱橫)하게 됨이라.

중국(中國)의 당나라 시대에 위대한 선지식(善知識)인 임제(臨濟)선사가 계셨다. 임제 스님은 출가(出家)하여 경율(經律)을 익힌 후에 황벽(黃檗)선사 회상(會上)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산문(山門)을 나가지 않고 참선정진에 전력(全力)을 다 쏟았다. 당시에 입승(立繩)을 보던 목주(睦州) 스님이 임제 스님을 쭉 지켜보고는 큰 그릇으로 여겼다. 하루는 조실(祖室)인 황벽 선사를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회중(會中)에 장차 산마루에 큰 정자나무가 될 만한 인물이 있으니 조실 스님께서 자비로 제접(提接)하여 주십시오."

"내가 벌써 알고 있네."

황벽 선사께서는 이미 큰 법기(法器)가 하나 와서 진실하게 공부 해나가고 있는 것을 간파(看破)하고 계셨던 것이다.

목주 스님은 황벽 선사께 이렇게 청을 드려놓고, 임제 스님을 찾아가서 "그대가 지금까지 열심히 참구(參究)하여 왔으니 이제는 조실 스님께 가서 한번 여쭈어 보게"하니, 임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을 여쭈어야 합니까?"

"불법(佛法)의 가장 긴요(緊要)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쭈어 보게."

임제 스님은 목주 스님이 시키는 대로 조실(祖室)방에 찾아가 예 삼배(禮三拜)를 올리고서 여쭈었다.

"스님, 어떠한 것이 불법(佛法)의 가장 긴요한 뜻입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황벽 선사께서는 주장자(拄杖子)로 이십방(棒)을 후려갈기셨다. 임제 스님이 겨우 몸을 이끌고 나와 간병실에서 쉬고 있으니, 목주 스님이 찾아왔다.

"조실스님을 친견(親見)했던가?"

"예, 가서 스님의 지시대로 여쭈었다가 방망이만 흠씬 맞아 전신이 다 부서진 것 같습니다."

"이 대도(大道)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신명(身命)을 내던져야 하네. 설사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만 쪽이 나더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네. 그러니 그대가 다시 한 번 큰 신심(信心)을 내어, 내일 아침에 조실 스님께 가서 종전과 같이 묻게."

이 경책에 힘입어 다음날, 임제 스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조실방에 들어갔다.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입니까?"

이렇게 여쭈니,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이십방(棒)이 날아왔다. 이번에도 목주 스님은 간병실에 누워 있는 임제 스님을 찾아와 사정얘기를 듣고 나서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 법은 천추만대(千秋萬代)에 아는 선지식을 만나기도 어렵고 바른 지도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니, 밤새 조리를 잘하고 다시 용기와 신심을 가다듬어 내일 조실 스님을 찾아가게."

그 다음날도 임제 스님은 조실방에 들어갔다가 역시 종전과 같이 혹독한 방망이만 이십방(棒) 맞고 물러나오게 되었다. 임제 스님은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목주 스님에게 말했다.

"저는 아마도 이 곳에 인연(因緣)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처소(處所)로 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은 좋으나 조실 스님께 하직인사나 올리고 가게. 갈 곳을 일러주실 것이네."



임제 스님이 떠날 채비를 다 해놓고서 황벽 선사께 가서 "스님, 스님께서는 큰 자비로 저에게 법(法)방망이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업(業)이 지중하여 미혹(迷惑)한 까닭에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하고는 하직인사를 올렸다.

"어디로 가려는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안(高安) 강변으로 가서 대우(大愚)선사를 찾게. 틀림없이 자네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이네."

그리하여 임제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고안 대우 선사 처소(處所)를 향해 수백 리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걸음걸음이 의심이었다.

무슨 의심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났는가 하면,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어째서 황벽 선사께서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번 다 이십방(棒)씩 육십방을 내리셨을까?' 그대로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빠져서 걷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수백 리 길을 걸어갔다. 팔만 사천 모공에 온통 그 의심뿐이었던 것이다. 화두(話頭)를 참구하는 참선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일념(一念)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구하는 한생각이 간절하게 지속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억겁다생(億劫多生)에 지은 업(業)이 빙소와해(氷消瓦解)되어 몰록 진리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법이다. 참학인(參學人)들이 10년, 20년 동안을 참구해도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육근육식(六根六識)의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몰록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어 부동일념(不動一念)이 되면, 일기일경상(一機一境上)에 홀연히 견성대오(見性大悟)하게 된다.

임제 스님이 여러 달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고안에 당도하여 대우(大愚)선사를 참예하였다.

"그대가 어디서 오는고?"

"황벽 선사 회상(會上)에서 지내다가 옵니다."

"황벽 선사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던가?"

"제가 불법(佛法)의 가장 긴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세 번이나 여쭈었다가, 세 번 다 몽둥이만 흠씬 맞았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대우 선사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황벽 선사께서 그대를 위해 혼신(渾身)의 힘을 다해 가르치셨는데, 그대는 여기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하시며 '허허' 웃으셨다. 순간, 웃는 그 소리에 임제 스님은 홀연히 진리의 눈을 떴다. 그토록 의심하던 '황벽 육십 방(棒)'의 낙처(落處)를 알았던 것이다.

"황벽의 불법(佛法)이 별 것 아니구나!"

임제 스님이 불쑥 이렇게 말하자, 대우 선사께서 임제 스님의 멱살을 잡고는 다그치셨다.

"이 철없는 오줌싸개야! 네가 무슨 도리를 알았기에, 조금 전에는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더니 이제 와서는 황벽의 불법(佛法)이 별 것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자 임제 스님이 대우 선사의 옆구리를 세 번 쥐어박으니, 대우 선사께서 잡았던 멱살을 놓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황벽이니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네."

임제 스님이 다시 황벽 선사께 돌아와, 여러 해 동안 모시면서 탁마(琢磨)하여 대종사(大宗師)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선(禪) 문중에서는 납자(衲子)가 종사(宗師)의 기틀을 갖추게 되면, 스승으로부터 법(法)을 부촉(付囑)받고 분가(分家)하여서 다른 곳에 회상을 연다. 이 때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부촉하는 표시로 주장자(拄杖子)나 불자(拂子)를 부치는데, 이 주장자와 불자는 모든 부처님의 살림의 정안(正眼)인 것이다.

하루는 임제 스님이 하직인사를 올리니, 황벽 선사께서 시자(侍者)를 불러 이르셨다.

"주장자와 불자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임제 스님이 즉시 응수(應酬)하기를, "시자야, 불〔火〕 가져오너라." 하였다.

이렇듯 기틀을 쓰는 데 있어서 돌불보다도 빠르고 번개보다도 빨랐다. 그 후 화북(華北)에 머물면서 후학(後學)을 지도하셨는데, 누구든지 법을 물으려고 문에 들어서면 벽력(霹靂) 같은 '할(喝)'을 하셨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은 황벽, 대우, 임제, 세 분 도인을 알겠는가?

同坑無異土
千里同風
萬里知音

같은 구덩이에 다른 흙이 없음이나
천 리 밖에서 바람을 같이 하고
만 리 밖에서 소리를 앎이로다.

일 마친 대장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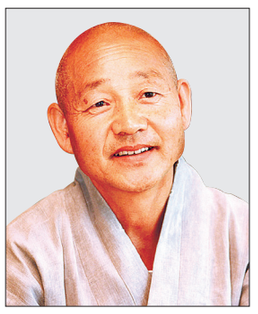
영축총림 방장 성파 대종사

雲捲秋空月印潭하니
寒光無際與誰談고
豁開透地通天眼하니
大道分明不用參이로다

구름 걷힌 가을 하늘 달이 못에 비치니
찬 빛의 끝없음을 누구와 이야기 할꼬
천지를 꿰뚫는 안목 활짝 열리니
대도가 분명하여 참구함을 쓸 게 없도다

결제대중이여! 목숨을 아끼지 말고 조사의 공안을 참구하되 내일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 내일은 없다. 내일을 기다리는 자는 설사 미륵이 열반하더라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람 몸 받았을 때 일대사를 마쳐야 한다. 출가자로 금생에 이 일을 마치지 못하면 시은(施恩)을 갚지 못한 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힘쓰고 또 힘쓸 지어다.

여러 대중들이여! 신심과 의심과 분심을 갖추고 치열하게 정진한다면 결정코 이번 철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니,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하고 철저하게 참구하여 일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수행자라야 대장부라 하고, 능히 시주물을 소화할만한 사람이라 하리라.



朝來暮去隨所適하니
一條橡栗一蒲團이로다
秋深石上掃落葉하야
煮茗燒栗圖淸歡이로다

아침 저녁 오고 가는데 적당함을 따르니
주장자 하나와 방석 한 개이네
깊은 가을 돌 위의 낙엽을 모아
차 달이고 밤 구워 맑은 기쁨 도모하네

날마다 산에 살면서 산 찾지 마라

덕숭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천년고목에 단풍이 들고 낙엽은 뿌리로 돌아갑니다. 만상이 휴식하는 겨울철, 납자는 결제할 선방에 김장울력하고 안거에 들어갑니다. 아, 무슨 복력으로 이 결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천안대비로도 엿볼 수 없는 이 물건! 이~뭘까? 일체가 부처님입니다. 백천만 번 지심귀명례 예불을 합니다. 손을 들고 발을 딛고 일거수일투족이 지심귀명례 예불입니다. 끝없는 일거리 속에 크고 작은 움직임들 모두가 돌이키는 정진이요, 부처님 친견입니다. 불러 응하고 쓸고 닦고 가고 오고 보현보살의 광대행입니다.

"방에서 졸지 말고 나와서 일해라." 벽초스님의 용맹정진 가풍입니다. 덕숭산 가풍입니다. 노인은 어린이가 되라. 해야 할 일은 벌떡 일어나 직접 해라. 가볍게 움직여라. 움직일 때 바람보충입니다. 움직여 일할 때 360각 본래 바람상태가 됩니다. 어린이 몸이 됩니다. 몰란결에 생각이 노인으로 고정되어 교주처럼 늙은 티를 내면 앞뒤가 막히고 숨길이 짧아집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뭘까? 한 덩어리로 걷고,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 고개가 펴지고 가슴이 펴집니다.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통일이 됩니다. 산천초목이 돌이키는 힘으로 돌아서고 건곤이 돌이키는 힘으로 돌아섭니다. 천사량 만사량이 알 수 없는 이뭘까로 고요해집니다. 산이 고요해지고, 물이 고요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지고,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갖가지 변동의 물결이 소용돌이칩니다. 같이 뒤집어지고, 같이 말아 엎어 다시 솟구쳐 내려쳐 파도는 본래 물로, 본래 한 덩어리로 더욱 새로워집니다. 언제나 정월 초하루요, 새날 새아침입니다. 천상천하에 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고요해지니 그림자까지 시원합니다.

將軍擧一劍
四海常安寧
誰知王舍一輪月
萬古光明長不滅
장군이 한 칼을 들었네.
납자가 이뭘까를 들었네.
사해가 편안해졌네.
누가 알겠는가?
그 옛날 왕사성의 이 달덩어리를.
아, 만고광명이여!
길이길이 그칠 줄 모르네.

이 일은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눈에 나타난 내 업장 너머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삼천대천세계가 이놈이라는 것에 먼저 눈이 떠져야 합니다. 희유한 이 물건에 무릎을 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부는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백천만 번 반조하고 돌이켜서 익숙해져야 굴릴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놓지 말고, 자꾸 돌이켜서 생각과 생활이 이 자체 알 수 없는 이뭘까 의심으로 순숙이 되어야 합니다.

不擧自擧.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되면 성역처를 경험합니다. 信心이 不二요, 不二가 信心입니다. 이 물건이 불이요, 불이가 이 물건입니다. 목탁소리가 생각 앞입니다. 성색이, 소리와 모양이 대적삼매입니다. 천지에 不關이요, 거래에 不關이요, 시비에 不關입니다. 한가하고 부드러워져서 공부에 방해가 없습니다. 공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조도의 벗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진삼보 대자대비에 이 정성을 바칠 뿐입니다. 이 일 한 가지 뿐이니 언제나 넉넉하고 아무리 바빠도 한가합니다.

身在海中 休覓水
日行嶺上 莫尋山
百年三萬 六千日
反復原來 是這漢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 찾지 마라
날마다 산에 살면서 산 찾지 마라
백년 삼만 육천 일에
가고 오고 원래가 이놈이네

구경원성살반야 이자체, 마하반야바라밀 이뭘까, 나무아미타불! 야, 그대가 부처님이시네!

수행은 본래자리 깨닫는 묘용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

洗鉢添甁이 盡是法門佛事라.
般柴運水가 無非妙用神通이라.
爲甚麽, 不解放光動地인가?

발우를 씻고, 물병을 채우는 일이
모두가 법문이고 수행이니라.
장작을 나르고 물을 긷는 일이
모두가 묘용과 신통이 아닌 것이
없음이라.
어찌하여 여전히 빛을 내뿜고
대지가 진동하는 걸 알지 못하는가?



어느 납자가 남양 혜충국사에게 물었습니다. "여하시본신노사나(如何是本身盧舍那)닛고. 무엇이 노사나불의 본신입니까?"

국사가 답하길, "여아과정병래(與我過淨甁來)하라. 나에게 물병을 가져다 주게."

납자가 국사에게 물병을 가져다드리니 국사가 말하길, "각안구처작(却安舊處著)하라. 본래 있던 곳에 다시 가져다 두게."

남양 혜충국사는 당나라의 선승으로, 6조 스님의 10대 제자중의 한 분입니다. 남양의 백애산에서 40년간 두문불출하며 용맹정진 하였기에 남양 혜충국사로 불립니다. 숙종(肅宗)과 대종(代宗)의 2대에 걸쳐 국사로 모셨습니다.

수행은 무명을 밝히고 본래자리를 깨닫게 하는 묘용입니다.

그 작용에는 어떠한 걸림도 없으며 만들어짐도 남겨짐도 없는 것입니다.

혜충국사의 법은 어떤 특별한 작용이나 방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법의 보리좌이며, 시시각각 움직이고 변화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가르침을 설하는 법석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가야산을 물들였던 가을 단풍도 어느새 그 정취를 감추고 이제 차분히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에 매진해야할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힘들게 한 코로나도 국민 대다수의 백신접종으로 인해 위드코로나 시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고인 게송에 행행본처(行行本處)요. 지지발처(至至發處)라 했습니다. 행하고 행해도 본래 그 자리요. 이르고 이르러도 처음 그 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여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명연수 선사께서는 만선동귀집에서 미묘한 작용은 행함 없이 행하고, 참된 지혜는 지음없이 지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번 동안거 결제기간 우리 결제 대중은 총림, 이 좋은 도량에서 닦는 것이 없이 애써 정진해서 보리도를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합시다.

鳥之行空이고, 魚之在水니라.
知恩報恩이니, 人間幾幾인가.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에 있네.
은혜를 알아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 세상에 몇이나 될런가.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